허베이성의 면방적

- 실을 뽑을 면이 없다고 한탄 <2/2>

허베이 굉흠 방직 집단(河北 宏鑫 集團)에 의하면, 방적이 스스로 실을 뽑는 것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싼 값의 실을 수입하는 편이 오히려 채산이 맞는다. 예컨대, 중국 국내에서 면사 번수로 21수를 1 톤 뽑으면, 코스트는 1만 7,000 위안(元) 정도 걸리는데, 수입하면 부두 인도 가격(埠頭 引渡 價格)은 1 톤에 1만 4천 위안 정도이며, 3천 위안 정도의 가격차(價格差)가 있다고 한다.

할당 쿼터(割當 quota)는 면방적들이 싫어하는 조치이다. "쿼터를 갖고 있으면 면화를 싸게 살 수 있다. 각사는 쿼터를 찾아서 구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매(轉賣)하기도 한다." 고 허베이 한단 해성위 집단 성면 공사(河北 邯鄲 海盛威 集團 聖綿 公司)에서는 한탄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면화 수입 할당 쿼터나 관세(關稅)가 없고 가격은 1 톤에 1만 200 ~ 1만 600 위안이다. 글로벌화한 경쟁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의 방적은 외국의 라이벌보다도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톤당 3천 위안의 원료 가격차는 기업이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것이다.

면화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업이 충분한 면화 구입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도 없어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방적의 이익은 적고 리스크는 크고 자금 회전은 어렵다. 은행은 방적에 자금을 제공하기보다 리스크가 적고 빠르면서도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철도(鐵道), 기반 시설(基盤 施設) 등에 융자를 집중하고 있다.

허베이성 방직 산업 협회(河北省 紡織 産業 協會)에 의하면, 면방적의 순이익은 3% 정도이며 각 클래스(class)의 면화 평균 가격으로 추계(推計)하면 1 톤에 1만 3천 위안을 넘으면 면방적은 이윤을 낼 수가 없다. 직접 수십만 명의 산업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주며 기업의 안정화, 사회의 안정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단 해성위 방직 인염 집단(邯鄲 海盛威 紡織 印染 集團)에서는 “60%의 생산력이 가동 중이고, 40%의 종업원은 일시 해고(Lay-off) 중이다.”고 말하고, “방적이 파탄나면 면화 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돈벌이 나온 농민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당사(當社)와 같은 국유 기업은 많은 도시인 등을 채용하고 있다. 방적의 이익은 적고 공장이 가동할 수 없으면 종업원의 해고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럴수록 사회의 불안정이 생긴다. 종업원의 급료는 그동안 떨어져서 지금은 높지 않으며, 숙련공일지라도 월급은 1,300 위안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면화 비축 정책과 수입 할당 쿼터를 말하면서 “국가가 정책을 제정할 때는 ‘이익 단체’가 영향을 받기 쉽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의 ‘일부 면화 비축 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익 단체가 면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단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중지하면 그들의 이익은 없어져 버린다.”고 지적하였다.

허베이 면방직 기업 경영자들은, 방적의 원재료 공급(原材料 供給)은 이미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모두 말하고 있다. 가공할 수 있는 면화가 없고, 가격도 크게 올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시급히 적절하게 사들이는 것을 줄이고 할당 쿼터를 발행하여 이 난관을 극복토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면화 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 정책(直接 補助 政策)을 쓰고 면화 가격을 시장 법칙에 따라 작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허베이 면방직 기업 경영자들의 제안도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면화 생산에 대해 직접 보조를 실시하여 국제 시장 가격으로 농민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농민의 이익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면방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